



가짜 팔로 하는 포옹
김중혁 지음

등단 15년 첫 연애소설집

올해로 등단한지 15년을 맞은 김중혁 작가가 네 번째 단편소설집 '가짜로 하는 포옹'을 발간했다. 일반적인 단편을 묶은 책이 아니라 연애소설을 다룬 작품집이다. 지금까지 그는 소설집 '뽕관뉴스', '악기들의 도서관', '일층, 지하 일층'과 장편소설 '좁비들', '미스터 모노레일', '당신의 그림자는 월요일' 등을 펴냈다.

이번 소설집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시간'이다. '요요'의 주인공 차선재는 스무살 시절 첫사랑(장수영)이 편지를 남겨두고 떠나버린 아픔이 있다. 시간이 흘러 낯선 사람이 된 차선재가 시계작품 전시를 열고, 장수영이 예고 없이 찾아온다. 그들에게 시간은 영원을 향해 직선으로 흐르지만 결국 다시 돌아오는 '요요의 시간'으로 규정된다. 모두 여덟 편의 소설에서 작가는 특유의 장기간 군더더기 없는 문장을 선보인다. 빠르게 읽히는 맛이 유감없이 펼쳐진다. <문학동네·1만3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손끝에 남은 향기
손종섭 지음

입을수록 맛깔나는 우리 한시

인생을 통독한 노학자의 지혜와 정이 갈피따다 배어났다. 입을수록 깊고 새로운 우리 한시의 매력을 만날 수 있는 책이 나왔다. 올해 아흔 여덟의 한학자 손종섭씨가 펴낸 '손끝에 남은 향기'는 깊고 그윽한 우리의 한시를 맛깔스럽게 풀어낸다.

저자는 고서 속의 한자들은 우리말의 실어증(失語症)에 빠져 있다고 본다. 본래는 정감 어린 우리말이었지만, 부득이하게 한자를 빌려 부호 삼아 썼기 때문이란다. 더욱이 우리말, 우리문학이지만 '부호 해독'의 길이 막혀 후손들과도 소통이 안 되는 현실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흔히 한문학자라고 하면 인문학이나 도리와 같은 고루한 이미지를 떠올리기 십상이다. 그러나 저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을 짚는다.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은 오직 마음발을 가꾸는 일로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김영사·1만8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누가 지도자인가
박영선 지음



최고 리더 자질은 '이미지' 아닌 소통과 가치관 그리고 공감능력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성난 파도처럼 배를 침몰시키기도 한다.

오바마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이들은 언제쯤 대한민국을 하나로 묶는 지도자가 출현할지 부러워했다. 더욱이 우리는 남북으로, 동서로, 세대로, 계층으로 갈갈이 찢겨 있는 상태가 아닌가.

역사의 수레바퀴는 결코 혼자 힘으로 돌릴 수 없다. 무수히 많은 이들의 팔과 열정, 시련이 한 방향으로 집결될 때 비로소 굴러갈 수 있다. 역사가 "만인의 역사, 천하는 어느 한 개인이나 집단의 소유물이 아니라 공물(公物)"인 것은 그때뿐이다.

이 역사의 수레바퀴가 돌도록 국민의 힘을 모으는 것은 단연코 지도자의 몫이다. 최고지도자가 한 시대를 어떻게 이끌고 대적하느냐는 국가의 명운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다.

광복 70돌을 앞둔 즈음, 지도자의 자질을 중요시한 화두로 떠오른다. 때마침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

영선 의원이 펴낸 '누가 지도자인가'는 우리 사회 리더들의 모습을 판별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전직 기자 출신다운 날카로운 감각과 정치인으로 단련된 감각이 저자 박영선의 '시선'으로 중첩된다.

"일국의 최고 정치지도자인 대통령이 되겠다는 꿈을 가진 사람, 또는 꿈을 가졌던 사람이 많다. 그러나 그 가운데 실제로 대통령이 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는 분명 구별되는 무엇이 있다. 대통령이 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무엇일까?"

책에는 박 의원이 만났던 14명의 지도자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박근혜, 이명박, 노무현, 문재인, 안철수, 정몽준, 정운찬, 정동영, 손학규 등 9명의 한국 지도자와 남아프리카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 넬슨 만델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아키노 전 필리핀 대통령, 라빈 하디시프 전 총리, 보리스 옐친 전 러시아 대통령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저자는 국민의 손으로 선출된 김영삼 대통령 시대 이후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에게 동일하게 시대를 응축하는 언어가 있었다고 본다. '군사 독재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김영삼', '한반도 평화와 민주주의 상징 김대중', '사람 사는 세상을 외친 바보 노무현', '경제대통령 이미지를 선점했던 이명박', '여성도 할 수 있다는 시대정신을 담은 박근혜' 등은 시대의 희망이 투영된 방향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시대의 희망'대로 국가를 경영했는가. 이 물음에 많은 이들은 고개를 끄덕인다. 저자는 지도자에 대한 면밀한 분석보다 만들어진 이미지가 유권자의 선택에 큰 영향을 줬다고 분석한다.

2012년 박근혜 후보는 '경제민주화'를 야당보다 더 잘 이용했고, 2007년 이명박 후보는 '경제 대통령' 이미지를 독점 하다가 퇴진 총리, 보리스 옐친 전 러시아 대통령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극화를 심화시켰다. 지도자의 이미지에 현혹될수록 정치는 한 편의 쇼로 전락된다. 만들어낸 이미지가 아니라, 살아온 역사와 가치관을 면밀히 살펴야 하는 이유다. 책에는 여당도 야당도 없다. 오직 한 시대를 살고 있는 지도자에 대해 말할 뿐이다. 진짜 리더, 진짜 지도자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 당위성을 역설한다.

"왜 우리의 정치인 가운데는 만델라처럼 분노를 용서로 승화시키고 은은한 미소로 국민을 편하게 해주는 지도자가 없을까?" 끝없이 반문하곤 했다. 좋은 지도자를 만드는 조건에는 위대한 인간, 위대한 국가, 위대한 계기가 필요하다고 한다. 왜 우리는 아직 그런 좋은 지도자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마음의 숲·1만5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위대한 과학자들은 모두 반역자였다!



과학은 반역이다
프리먼 다이슨 지음

일반적으로 '반역'이라 하면 '배반'이나 '혁명' 같은 급진적인 단어가 연상된다. 사회적인 측면에서 반역은 기존 체제를 전복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다.

하지만 프리먼 다이슨이 말하는 반역은 그렇지 않다. 그는 물리학계에서 '슈뢰딩거-다이슨 방정식'으로 노벨상 후보에까지 오른 학자다. 코넬 대학 재학

시절에는 원자와 방사선의 행동을 계산하는 간편한 방식을 개발하기도 했다. 그가 말하는 반역은 과거의 제약과 불평등에서 벗어나려는 합리적 이상의 저항이다.

저자는 과학의 패러다임을 바꿨던 19, 20세기 과학자들을 통해 반역의 가치를 찾고 21세기 과학의 길을 모색한다. 그가 본 갈릴레오가 갈릴레오와 오늘의 아마추어 천문학자들은 끊임없이 독립적인 철학이나 방법론의 규칙에 저항하며 반역의 선봉에 섰다.

"시의 관점이 하나가 아닌 것처럼, 과학에도 유일한 관점 같은 것은 없다. 과학은 불완전하고 모순적인 관점들의 모자이크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들에도 한

가지 공통 요소가 있으니, 동서양을 막론하고 지역의 우수한 문화가 강요한 제약들에 맞서는 것, 즉 '반역'이다."

저자는 생생한 경험담을 토대로 독자들을 발견의 현장으로 안내한다. 이 과정에서 과학과 기술로 야기된 윤리적 문제와 불평등, 신기술이 가져올 위험성, 생태계 문제 등 굵직한 현안을 다룬다.

그러면서 저자는 "결코 틀리지 않는다면 과학이 무슨 재미인가"라고 묻는다. 과학은 독점의 대상이 아니며 누구에게나 무공무진하게 열려 있는 상상력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반니·1만9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우리의 적은 좌·우도, 진보·보수도 아닌 독선



독선 사회
강준만 지음

"우리의 진정한 적은 좌도 우도, 진보도 보수도 아닌, 독선이다."

탁월한 인물 비평과 정교한 한국학 연구로 우리사회에 의미있는 반향을 일으켜온 강준만 교수(전북대)의 '세상을 꿰뚫는 50가지 이론' 시리즈의 네 번째 책 '독선 사회'가 출간됐다. 책은 독선이 가장 문제가 되는 영역

을 정치로 보고 있다. 여야 싸움에서건 같은 당내 싸움에서건, 정치인들은 자신의 정당성을 10, 상대편의 정당성을 0이라고 주장하는 '10대 0'의 정치 고질병을 앓고 있다.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해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자신의 특독함과 확신의 한계를 깨닫는 것이다.

강 교수의 메시지의 한결같다. "자신의 확신을 의심하라!"

"문제는 독점의 여부와 정도가 아니다. 진짜 문제는 자신의 독점함을 확신하는 독선이다... 나를 꿰뚫어보는 게 세상을 꿰뚫어 보는 일이고, 세상을 꿰뚫어보는 게 나를 꿰뚫어보는 일이다."

<인물과 사상사·1만5000원>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2015 여수 제10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THE 10th NATIONAL MARINE SPORTS GAMES YEOSU 2015

2015. 8.13 | 목 ~ 8.16 | 일 / 4일간
여수해양엑스포공원 / 소호요트경기장

개회식: 8.13(목) 19시 초청가수: 나인뮤지스/하각/울랄라세션(빅오쇼 무료관람)

주최 | 해양수산부 주관 | 여수시 대한체육회 가평경기단체 한국해양소년단연맹 후원 | 전라남도

금리 부담은 낮게, 대출은 쉽게!

광주문화신협

- 아파트 담보대출(특별금리상당)
 - 최저금리 적용으로
 - 감정이 최고 80%까지 가능
 - 추가 신용대출 가능
- 상가 담보대출
 - 빌딩, 단독상가, 아파트상가
 - 높은 한도와 낮은 금리로
 - 신용에 따라 상가대출+신용대출까지~
 - 대출금리: 특별 우대금리 · 대출한도: 최고 50억
- 자영업자와 직장인을 위한 신용대출
 - 간단한 대출 절차로
 - 최고 7천만원까지 가능
- 정부 보증부 세민대출 햇살론
 - 사업운영자금 최고 2천만원
 - 창업자금 최고 5천만원
 - 생계자금 최고 1천만원
- 자영업자(무담보/무보증) 승승장구론
 - 개인(창업) · 임대사업장 최대 2천만원
 - 자금대출 · 자가사업장 최대 3천만원
 - 운영자금대출 / 최대한도 7천만원
- 아파트 임대보증금대출
 - 전세 보증금
 - 최고 80%까지 가능

문흥본점 266-4150 | 양산지점 573-4150 | 운암지점 528-4150
 불우민지점 513-4150 | 매곡지점 572-4150 | 첨단지점 576-4150